

# 청소년의 가출 : 가족적, 개인적 요인 및 대처행동의 영향

## Adolescent Runaway: The Impact of Family, Individual Factors and Coping Behavior

안동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玄 恩 旻

Dept. of Home Management, Andong University  
Associate Prof.: Eun Min Hyun

### ● 목 차 ●

|            |             |
|------------|-------------|
| I. 서 론     | IV. 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 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effects of family,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nd coping behaviors on adolescent runaway.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Adolescents who had higher level of family violence, lower level of communication with parent,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and resource adequacy perception reported higher scores in runaway.
2. Adolescents who had higher level of emotional distress, lower level of self-esteem and self-control tended to have higher scores in runaway.
3.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dolescent runaway according to coping behavior styles.
4. Maladaptive coping behavior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runaway adolescent group.
5. Adaptive coping behaviors were not associated with both runaways and non-runaways group.
6. Communication with father had a direct effect on adolescent runaway and also indirect effects through emotional stress and maladaptive coping behavior.
7. Maladaptive coping behaviors had a direct effect on adolescent runaway but adaptive coping behavior had no effect.
8. Emotional stress had an indirect effect through maladaptive coping behavior on adolescent runaway.
9. Communication with father had a direct effect and an indirect effect through self-esteem of adolescents on the adaptive coping behavior.
10. Family adaptability had a direct effect on the adaptive coping behavior.

11. Communication with father influenced negatively on the emotional stress and positively on the self-esteem and locus of control of adolescents.

## I. 서론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물질만능주의,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가치관 혼란, 가치갈등 등 다방면의 문제를 겪게되었다. 최근 들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해체와 그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방임, 입시위주의 교육방식, 청소년 탈선을 부추기는 향락적, 퇴폐적인 과소비 문화, 그리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하고 창의적인 활동공간의 부재 등과 같은 역기능적인 사회, 심리적 환경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적절한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한 채 위기 상황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심리적인 환경은 청소년기의 불안심리와 결부되어져 왜곡된 청소년들만의 하위문화를 형성시키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청소년들의 가출문제는 중요한 사회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김미희, 1997).

우리 나라 청소년의 77.4%가 가출충동을 느낀적이 있고 15%의 청소년은 가출경험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서울YMCA, 1991:1996, 대구 청소년상담실, 1996). 가출충동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반드시 가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청소년들의 가출잠재성의 의미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없다. 1996년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20세 미만의 가출청소년의 숫자는 1993년 11,933명에서 1994년 13,522명, 95년에는 16,013명으로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13-18% 가량 늘었으며, 지난 1996년 3월까지 3천 5백 59명이 집을 나가 지난 해 같은 기간의 3천 1백 99명 보다 11%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백서, 1996). 이러한 경찰청의 통계를 비롯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서울YMCA, 1991, 한국청소년 개발원, 1992, 표갑수, 1993)에서는 청소년 가출자 또는 학교에서의 장기결석자가 10만 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에 포함될 수 없거나 되지 않은 사례를

고려한다면 실제로 가정을 이탈해서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도는 청소년들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소년 가출은 유해한 환경에 그들을 노출시킴으로써 비행의 유발자로 혹은 비행의 희생자가 되도록 상승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청소년기에 수행해야 할 정상적인 발달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 최근 가출청소년들이 “성적 서비스산업의 취업 예비군”을 형성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가출 청소년들은 주점, 찻집, 원조교제, 전화방, 이벤트 회사등의 업소를 통해 자연스럽게 윤락으로 빠져들면서 성적 서비스산업의 취업 예비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성적 서비스산업의 현장경험을 한 청소년의 60% 정도가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선택했고 음주, 흡연, 낭비, 왜곡된 성의식, 낮은 자존감 등에 빠져있어 이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성적 서비스산업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순만이 아닌 수요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청소년에 대한 인성교육 등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조선일보, 1998년 11월 11일자).

가출청소년의 수적인 증가와 질적인 악화 양상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가출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 가출의 원인을 개인적, 가족적, 사회 문화적 환경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해결책을 찾아온 경향이 있으나 사회환경적 요인이 청소년 가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다(남영옥, 1998; 진병제, 1991). 1970년대 이후 가출의 원인으로서 부모의 역할 또는 가정내에서의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바뀌어서 최근의 연구들은 청소년의 가출문제의 일차적 요인을 가족 안에서 탐색하고자 했고(도수경, 1991; 나철, 1992; 엄명용, 1996; 오성숙, 1997; 남영옥, 1998) 가출청소년의 문제는 가족 내에서의 가족

관계 특히 부모-자녀관계와 가족의 기능이 중요변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김광문, 1988; 남영옥, 1998, 권운아·김득성, 1999, 지창희, 1987)들은 가출과 가족환경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는 가출이 가족환경과 밀접한 상관이 있다는 것과 가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족환경 내에서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가정은 인간이 경험하는 최초의 사회환경이며 인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물리적, 지적, 정서적 자원을 제공하는 일차적 환경이므로 개인의 성격, 가치관, 자아개념 등은 가정환경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으로 형성되어진다. 이것은 가족의 심리역동적 환경이 청소년의 성격을 형성하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다른 어떤 환경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출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적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남영옥, 1988).

그리고 급속한 신체적, 정신적 성숙으로 인한 많은 심리적 갈등과 적응상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대처방식은 가족원의 의사결정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 개방적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력이나 적응력과 같은 가족체계 자원과 개인의 정서상태나 통제가능성에 대한 지각이나 자존감과 같은 개인적 자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성격특성 중 자존감과 통제성은 특히 스트레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자원이다. 대처는 개인 및 가족적 자원 모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 그리고 개인의 자존감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McCubbin, 1983). 따라서 가족적 자원뿐 아니라 개인의 성격이나 대처양식이 가출을 유발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안창규외, 1995; Roberts, 1987)는 청소년 가출의 원인으로 가족적, 개인적 요인 및 대처의 영향력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가족환경이 어떻게 청소년의 인지적·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에 따라 대처행동 유형은 차이가 있는지 또한 대처행동의 유형은 청소년의 가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환경인 가족환경에 초점을 두어 가족환경이 개인의 정서적·인지적, 행동적 특성 및 청소년의 가출에 미치는 과정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즉 청소년의 가출과 대처행동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대처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의 영향력과 개인적 요인에 대한 가족환경 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경로를 밝히는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가출청소년의 특성

가출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최재석(1982), 이소희·주정일(1981)은 정신적 갈등의 해결이나 생활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가족을 떠나 안주의 장소를 구하려는 일종의 도피행위로 정의하였고 장인협(1981)에 의하면 가출은 정신적 갈등이 평소 무의식속에 잠재해 있다가 억압상태로부터 벗어나려할때 나타나는 이탈행동이다. 형사정책연구원(1993)은 가출이란 자신 및 자신을 둘러싼 주위환경에 대한 반발이나 해결을 위해 보호자의 승인없이 최소한 하룻밤 이상 무단으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충동적 또는 계획적 행위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가출이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은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82년에 31,066건에서 1993년 40,203건, 1996년에 43,739건으로 크게 늘어났고(문화체육부, 1997) 다른 조사(대검찰청, 1996; YMCA, 1996)에서는 가출청소년의 발생숫자는 지속적이며 증감을 반복하나 전체적으로는 결코 감소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고 20세 미만의 가출이 전체 가출자의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매년 70만 내지 100만명의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따라서 많은 가족들에서 청소년 가출은 위기의식을 자아내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방어기제 또는 방어

수단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청소년이 환경에 더 이상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적 부적응으로 인해 초래된 행동으로 보고 있다(김혜래, 1985).

### 1) 가족적 특성

가출청소년의 가족은 구조적, 기능적 결손가족의 역기능적 가족특성을 나타낸다. 가출청소년의 반수 정도가 편부모, 계부모 가족(Roberts, 1987; Shellow et al., 1967)인 구조적 결손가족으로 나타났으며 Margerum(1987)에 의하면 가출청소년의 가족은 가족응집력이 낮고 불만족스러운 가족관계와 가족갈등, 학대를 경험하는 기능적 결손가족이다. Jaffe(1963)는 가족의 구조적 결손보다 기능적 결손이 청소년 비행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김향초(1998)도 가정은 자율성과 결속성 그리고 일관성이 결여된 환경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응집력 상실시 자녀에게 파괴적이고 반사회적 성향을 조장함으로써 비행을 유발하게 된다고 하였다.

Kogan(1980)의 연구에서 가출청소년의 가족들은 가족지향의 정도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구성원들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결여되어 가족 응집력과 적응력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가족의 심리환경적 변인과 가출충동과의 관계를 인문계, 실업계, 교정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남영옥(1998)에 의하면 전체 청소년과 인문계의 경우 의사소통형태가 가출충동에 가장 영향력이 크고 실업계 청소년의 경우는 가족 적응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 가족 적응력이 나쁠수록 가출충동이 더욱 크게 증대한다. 즉 지나치게 통제적인 가족내 역할관계와 규칙 등이 청소년에게 갈등과 불안의식을 조장하여 가출을 유발케 한다. Bell & Hien(1984)의 가출청소년가족과 정상가족의 비교연구에서도 가출청소년가족이 정상가족에 비해 가족적응성에서 중간범위나 극단수준의 범주에 더 많이 해당되었다.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 형태와 청소년 가출과의 관계를 밝힌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 형태가 가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규수, 1993; 김윤희, 1989; 김향초, 1998; 남영옥, 1998; 도수경, 1991; 안

창규외, 1993). 도수경(1991)에 의하면 가출소녀가족은 비가출소녀가족에 비해 부녀간 모녀간 의사소통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기보다 규제하는 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하고있으며 지나치게 권위적인 통제와 부모 훈육태도, 융통성 없는 역할 등이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즉 가족성원간에 역기능적 가족의사소통과 감정적 유대가 낮은 적응력이 가출과 많은 관련이 있다. 미국의 가출청소년법 연간보고서(1978)에서도 가출청소년 가족의 특징으로서 낮은 갈등해결수준과 적절치 못한 의사소통 그리고 비효과적 부모의 감독을 꼽고있으며 58.1%의 가출청소년들이 부모와 의사소통이 아주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의 의사소통을 보고하였다.

가족폭력이 청소년가출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은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주영희, 1985; 권지영, 1991; 형사정책연구원, 1993; Farber et al., 1984). 가정 내에서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학대는 부모의 동기, 강도와는 관계없이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상처를 줄 수 있는 신체적, 성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을 포함한다. 학대의 결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고 가시화 되지 않는 경우에도 누적효과가 클 수 있다(김광일, 1985). 청소년기에 부모에 의해 가해지는 학대는 자체로서 가출의 주요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가출 후에도 다양한 형태로서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신체적·심리적 손상을 주고 있고 학대의 경험의 높을수록 또한 가벼운 학대라도 빈도가 높을수록 가출경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권윤아·김득성(1999)의 연구에서도 첫가출은 우울한 심리상태에서 가족의 학대를 피하기위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재가출은 경조성과 가족역기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의 정서적, 행동적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Farber & Joseph, 1984) 우울을 가장 흔한 증상으로 주장한다. 특히 아동기부터 계속되어온 학대는 청소년기동안에 생긴 학대보다 더 심한 우울과 관련될 수 있다. 신체적으로 학대받은 청소년들은 우울증, 낮은 자아정체감, 자살시도 등 개인적인 면에 있어서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모의 학대는 가출 횟수에 영향을 주고 가출횟수는 정상적이지 않은 또래들과의 개입가능성을 높여 약물사용과 범법행위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학대하는 부모로부터 벗어나고자 자신의 가정으로부터 재가출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에의 개입을 부추기고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김향초, 1998).

또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여부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소득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육구충족에 대한 불만으로 긴장상태에 놓일 수 있으며 가출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김혜래, 1985; 안창규외, 1995;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3). 특히 빈곤가족일수록 생활곤란뿐만 아니라 가족의 불화와 파탄을 야기 시키며 청소년의 기본육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그들로 하여금 가출 및 범죄발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부모의 감독과 보호가 결여되기 쉽고 빈곤으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자녀에게 전이되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지적, 정서적, 사회적 행동의 발달 지연, 나쁜 교우관계의 형성 등을 초래한다(전유자, 1982).

## 2) 개인적 특성

가출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으로 청소년의 부정적 성격변인을 들 수 있다. 가출청소년들의 성격상의 특징으로서 자아존중감이 낮고 가정과 학교에서의 반복된 좌절로 인한 비규범성과 낮은 신뢰감, 낮은 직업에의 열망, 불안과 방어적 경향, 또한 지나치게 충동적이어서 통제력이 거의 없는 점을 꼽을 수 있다(김향초, 1998, 안창규외, 1993). 가출청소년들은 비가출청소년과 비교해볼 때 자신의 환경에 대해 통제감과 평정감이 낮으며(Adams & Munro, 1979; Englander, 1984; Leventhal, 1963) Levental(1963)에 의하면 아동의 통제결핍감이 클수록 가출과 같은 절망을 표현하는 행동경향이 커진다고 한다.

Shellow(1967)는 가출자의 개인적 정신병리의 결과로 가출자는 심한 불안을 보인다고 주장하고 가출을 통상적인 가족갈등이나 일반적인 경제상황에서 비롯되는 상황적 압력에의 적응적 반응이라고 해석한다.

Shinohara와 Jenkins(1967)는 다면적 인성검사를 통하여 가출청소년은 신경증적 경향이 높고 불안이 크며 자아상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하였고 Roberts(1982)는 가출은 낮은 충동억제, 신경증, 자기애적 인격장애 혹은 낮은 자아개념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청소년은 행동상의 문제, 즉 가출, 성폭력, 약물남용 등의 문제와 학업부진의 성취욕 상실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안향림, 1991).

낮은 자존감은 학대받는 청소년의 일반적인 증상이며 우울과도 관련된다. 학대받는 청소년은 학대의 지속에 따라 불안과 분노의 감정이 축적되어 작은 스트레스에도 폭발하게되고 좌절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쉽게 상처 입는다. 분노를 자기 내적으로 향하여 우울을 경험하거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에 관여하거나 약물, 알코올 남용, 가출, 성적일탈, 자살 등과 같은 도피적 행동을 하게된다(안창규외, 1993; 시립청소년 사업관, 1992). 일반적으로 가출청소년들은 낮은 자아상을 갖고있으며 자신감이 결여되어있어(Englander, 1984)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방어적인 특성을 지닌다(Levinson & Mezei, 1970).

## 2. 가출청소년의 대처행동

대부분의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이미 학습된 다양한 문제해결방법과 대처방법에 의해 스트레스를 해결한다. 그러나 이미 학습된 대처방법에 의해 해결할 수 없거나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될 때 위기상태에 빠지게된다(Roberts, 1987).

대처는 잠재적 위협, 도전 또는 만족을 포함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적응행동의 과정이다(Folkman & Lazarus, 1980). Folkman과 Lazarus에 의하면 대처는 성공적인 노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효율성과 관계없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는 모든 목적적인 시도를 포함한다. Silver와 Wortman(1980)은 대처란 직접적으로나 잠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개인

이 행하는 모든 반응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의하면 대처에는 부적자극에 대한 학습된 반응뿐 아니라 위협에 대한 본능적이거나 반사적인 반응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정의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과 함께 의도적이고 목적적인 반응만을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로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대처행동은 문제해결적 대처행동과 정서적 대처방안으로 대별하여 적용하여왔다. 문제해결적 대처는 개인이 문제되는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적인 조건을 변화시켜 스트레스의 근원에 작용하려는 노력이고 정서지향적 대처는 스트레스와 관련되거나 스트레스로부터 초래되는 정서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이다. 가출행동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스트레스 유발사건에 대한 청소년의 대처능력 여부가 가출행동을 유발한다고 보고한다(김혜래, 1985; Young et al., 1983; Roberts, 1982). 스트레스 유발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대처행동으로는 약물사용, 음주, 자살기도, 잠을 청하는 등의 비효과적 대처가 대부분으로 밝혀졌다.

나동교·이용석 역(1991), Roberts(1982)도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충동을 느끼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는 이유로서 대처행동의 차이를 설명하고있다. 비가출 청소년은 가출청소년과는 대조적으로 가출하기 전에 가출의 결과를 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여 가출과 같은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견하고 대안적 행동을 함으로써 그들의 욕망을 통제하는 능력을 보인 반면 많은 가출청소년들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대부분이 부모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스트레스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고 약물사용이나 음주와 같은 부정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했다.

Roberts(1982)의 연구에서 가출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알코올이나 약물을 사용하거나 울기, 화피, 자해 등의 부정적인 대처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illy(1978)는 가출소년들은 비가출소년들에 비해 공격적이고 충동적이며 화를 잘 내며 쉽게 흥분하고 불안정하다고 하였고 이정자(1973)는 가출청소년의 성격상의 징후로서 충동성, 흥분성, 경조

성, 유약성, 음울성, 편집성 등을 꼽았으며 이런 성격을 가진 청소년은 정상적인 성격이나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이 비행이나 가출로 유도되지 않을 상황적 요인에 긍정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가출행동을 일으키는 심적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가출청소년과 비가출 청소년의 스트레스적 또는 위협적인 상황에서의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에서(Roberts, 1982) 비가출 청소년은 가까운 친척, 형제 또는 전문상담원과 같은 의미있는 다른사람과 대인관계적 친밀성을 유지하고 긍정적이며 적응적인 문제해결 대처방식을 사용하나 가출청소년은 약물이나 알코올, 가출, 자살 시도, 잠자기, 잊어버리기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려한다고 하였다. 즉 가출청소년의 83%가 스트레스를 다룰 때 부정응적인 수단을 사용하는데 비해 비가출청소년의 80%가 문제해결과 정의 방법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한다.

### I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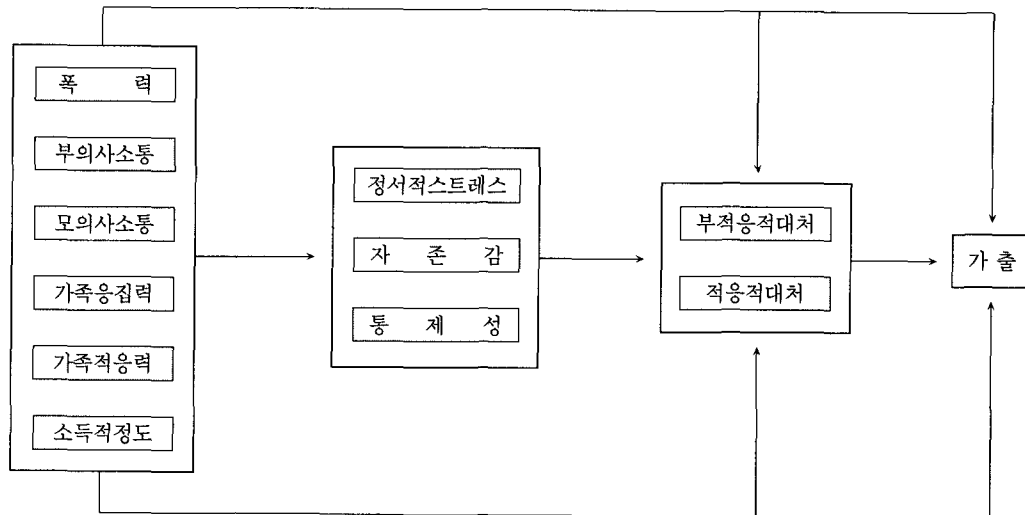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 개인적, 대처행동 변인의 상대적 중요성과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과모형 <그림 1>을 설정하였다.

#### 1. 연구문제

- 1) 가출은 관련변인(가족적, 개인적, 대처행동)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가출청소년과 비가출 청소년간에 대처행동과 가출에 차이가 있는가?
- 3)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 2. 조사대상

대구시 월성동 영구 임대아파트 거주지역의 중고등학교 19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임대 아파트



〈그림 1〉 청소년 가출 관련변인 이론적 모형

지역의 청소년들이 가출성향이 더 많을 것으로 가정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고 부실자료를 제외한 166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 3. 측정도구

#### 1) 가족적 요인

##### (1) 의사소통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Olson과Barnes(1982)의PAC(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Adolescent form)척도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거의 항상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임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는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Cronbach's  $\alpha=.82$ ,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Cronbach's  $\alpha=.77$ 로 나타났다.

##### (2) 가족응집력과 적응력

가족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Olson, Portner, Lavee(1985)가 개발한 FACES III를 사용하여 가족

응집력과 적응력을 조사하였다. FACES III는 가족응집력 10항목과 적응력 10항목 20항목으로 구성되어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거의 항상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아 가족기능이 좋음을 의미한다. 가족 응집력 척도의 신뢰도가 Cronbach's  $\alpha=.86$ , 가족적응력은 Cronbach's  $\alpha=.74$ 로 나타났다.

##### (3)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정도는 Straus(1979)의 CTS(Conflict Tactics Scale)척도에서 신체적 학대 6 문항을 사용하였다.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폭력을 전혀 경험한 적이 없다 부터 거의 매일 경험한다는 5단계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에 의한 신체적 폭력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로 나타났다.

##### (4) 소득적정도

청소년의 물질적 욕구충족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소득적정도를 조사하였다. 소득적정도는 현재 가족의 소득이 생활에 어느정도 충분한지를 묻는 단일 문항으로서 전혀 충분하지 않다부터 가족이 원하는 모두를 해결하고 지출도 한다까지 나타낸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66

| 구 분   | 구 분                                                           | N(%)                                                               |
|-------|---------------------------------------------------------------|--------------------------------------------------------------------|
| 성 별   | 남<br>여                                                        | 100(60.2)<br>66(39.8)                                              |
| 연 령   | 12-13세<br>14-15세<br>16-17세<br>18-19세<br>20세 이상                | 10( 6.1)<br>90(54.5)<br>40(24.2)<br>16( 9.7)<br>9( 5.5)            |
| 종 교   | 무 교<br>불 교<br>기독교<br>천주교<br>기 타                               | 68(41.2)<br>34(20.6)<br>40(24.2)<br>21(12.7)<br>2( 1.2)            |
| 학 교   | 인문고<br>실업고<br>중학교                                             | 14( 8.4)<br>28(16.9)<br>124(74.7)                                  |
| 가출경험  | 유<br>무                                                        | 40( 24)<br>126( 76)                                                |
| 부 직 업 | 무직<br>생산직, 운수, 단순노무직<br>농, 축, 수산업<br>판매서비스업<br>행정관리직<br>전문관리직 | 41(31.1)<br>32(24.2)<br>3( 2.3)<br>36(27.3)<br>16(12.1)<br>4( 3.0) |
| 모 직 업 | 무직<br>생산직, 운수, 단순노무직<br>농, 축, 수산업<br>판매서비스업<br>행정관리직<br>전문관리직 | 55(41.4)<br>18(13.5)<br>4( 3.0)<br>43(32.3)<br>11( 8.3)<br>2( 1.5) |
| 부교육수준 | 무학<br>국졸<br>중졸<br>고졸<br>전문대 및 대졸<br>대학원 이상                    | 6( 4.2)<br>28(19.7)<br>30(21.1)<br>61(43.0)<br>14( 9.9)<br>3( 2.1) |
| 모교육수준 | 무학<br>국졸<br>중졸<br>고졸<br>전문대 및 대졸<br>대학원 이상                    | 3( 2.2)<br>20(14.5)<br>42(30.4)<br>64(46.4)<br>6( 4.3)<br>3( 2.2)  |
| 가족형태  | 양친 모두 계신다<br>아버지만 계신다<br>어머니만 계신다<br>양친 모두 안계신다               | 104(62.7)<br>27(16.3)<br>30(18.1)<br>5( 3.0)                       |

## 2) 개인적 요인

### (1) 자존감

자존감은 Rosenberg(1979)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전적으로 동의한다까지의 4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0$ 로 나타났다.

### (2) 정서적 스트레스

정서적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불안과 우울 수준을 나타내며 불안 5문항과 우울 5문항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 수준이 높아 정서적 스트레스가 많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2$ 로 나타났다.

### (3) 통제성

통제성은 청소년이 자신의 인생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일문항이며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에서 완전히 통제한다까지의 7단계로 구성되어있다.

## 3) 대처행동

청소년의 대처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Patterson과 McCubbin(1981)이 개발한 ACOPE(Adolescent Coping Orientation for Problem Experiences)척도의 문항중 청소년 가출에 관련있는 16문항을 선정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추출된 2가지 요인을 적응적 대처와 부적응적 대처로 명명하여 사용하였다. 적응적 대처행동의 문항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 내가 좋아하는 활동(오락, 운동, 낚시, 산보 등)을 한다, TV나 영화를 본다, 음악을 듣는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부적응적 대처행동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운다, 화를 내고 소리지른다, 학교수업을 빼 먹는다, 약물을 사용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전혀 안한다부터 거의 항상 한다까지의 5점 척도이며 적응적대처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62$ 로 나타났고 부적응적대처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65$ 로 나타났다.

## 4) 가출

가출을 측정하기 위해 가출경향성척도(ESC)와



가출경험 유무 문항을 사용하였다. 가출경향성 척도의 문항은 “가정을 떠나 빨리 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지금 어디로든지 멀리 떠났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가끔 집을 뚝시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 집을 떠나 돈을 벌고싶다, 이렇게 된 우리 집에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집을 나갈 거고 친구와 약속이 있다, 가출한 적이 있다, 부모님 몰래 집을 나가 재지에서 지낸 적이 있다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없년부터 자주까지 4단계 Likert 척도이며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로 나타났다.

가출집단과 비가출집단의 구분은 가출경향성 척도의 “가출을 한적이 있다”의 문항과 가출경험 유무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기초로 하였다. 가출경험 유무 문항에 “무”라고 답하고 가출경향성 척도의 “가출 한적이 있다” 문항에 “없다”라고 답한 청소년을 비가출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가출경험 유무에 “유”라는 응답과 가출 한적이 있다 문항에 “드물게”이상 범주에 답한 청소년은 가출청소년으로 분류하였다. 비가출 청소년이 126명으로 나타났고 가출청소년이 40명으로 나타났으나 비가출 청소년 중 64%의 청소년이 가출경향성 척도에서 3점 이상으로 나타나 가출잠재성이 높게 나타났다.

가출경향성 척도와 가출경험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상관계수  $r = .62$   $p < .0001$ 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고 평균점을 기준으로 t-test한 결과에서도 가출경향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가출경험이 높게 나타났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t = 5.81$ ,  $p < .0001$ ).

#### 4. 자료분석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빈도와 백분율, t-test, Pearson의 상관관계, 그리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 1. 가족적, 개인적 요인 및 대처행동에 따른 청소년의 가출

청소년의 가출이 가족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t-test를 하였다.

〈표 2〉에 의하면 가족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가족적 요인중 폭력점수가 높은 집단,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점수가 낮은 집단,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이 낮은 집단 그리고 소득적정도가 낮은 집단에서 가출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에서(전유자, 1982; 김향초, 1998; 남영옥, 1998) 나타난 바와 같이 기능적 결손가족은 가족내 갈등으로 인하여 가족간의 유대가 단절되고 가족원 각자의 역할수행이 적절하지 못하여 가족불화, 애정결핍, 무관심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한 긴장과 갈등은 청소년 자녀에게 불안의식을 조장하여 가출을 유발케 한다.

〈표 2〉 가족적, 개인적 요인 및 대처행동에 따른 청소년 가출

|           |         | 구분   | 평균    | t값        |
|-----------|---------|------|-------|-----------|
| 가족적<br>요인 | 폭력      | 높은집단 | 19.81 | 3.220**   |
|           |         | 낮은집단 | 16.16 |           |
|           | 부의사소통   | 높은집단 | 14.81 | -6.891*** |
|           |         | 낮은집단 | 22.42 |           |
|           | 모의사소통   | 높은집단 | 14.61 | -5.557*** |
|           |         | 낮은집단 | 20.75 |           |
| 가족적<br>요인 | 가족응집력   | 높은집단 | 16.54 | -3.430*** |
|           |         | 낮은집단 | 20.60 |           |
|           | 가족적응력   | 높은집단 | 16.29 | -3.438*** |
|           |         | 낮은집단 | 20.29 |           |
|           | 소득적정도   | 높은집단 | 17.28 | -2.726**  |
|           |         | 낮은집단 | 22.78 |           |
| 개인적<br>요인 | 정서적스트레스 | 높은집단 | 20.52 | 4.363***  |
|           |         | 낮은집단 | 15.72 |           |
|           | 자존감     | 높은집단 | 16.27 | -3.48***  |
|           |         | 낮은집단 | 20.24 |           |
|           | 통제성     | 높은집단 | 17.11 | -3.390**  |
|           |         | 낮은집단 | 23.10 |           |
| 대처<br>행동  | 부적응적대처  | 높은집단 | 20.25 | 5.64***   |
|           |         | 낮은집단 | 14.12 |           |
|           | 적응적대처   | 높은집단 | 18.42 | .700      |
|           |         | 낮은집단 | 17.59 |           |

그리고 개인적 요인에서도 <표 2>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청소년의 정서적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 자존감이 낮고 통제성이 낮은 집단에서 가출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도 김향초(1998), 안창규 외(1993)의 연구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가출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으로서 자아존중감이 낮고 불안과 우울 수준이 높고 지나치게 충동적이어서 통제력이 없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가출이 대처행동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과 t-test를 하였다.

상관분석 결과<표 3>에 의하면 부적응적 대처행동은 가출과 유의한 관계( $r=.553, p<.001$ )를 나타낸 반면 적응적 대처행동은 관계가 없었다( $r=.077, p>.05$ ). 또한 부적응적 대처와 적응적 대처행동 점수의 평균점을 기준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t-test한 결과<표 2>도 같은 경향을 나타낸다. 부적응적 대처행동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가출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t=5.64, p<.001$ )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반면 적응적 대처행동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는 청소년의 가출에 차이가 없었다( $t=.700, p>.05$ ). 이 결과는 대처행동의 차이에 따라 가출충동을 통제하거나 반대로 가출하는 청소년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나동교, 이용석 역(1991)과 Roberts(1982)에 의하면 가출 청

소년은 약물사용이나 음주와 같은 부정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비가출 청소년은 가출과 같은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견하고 대안적 행동을 함으로써 그들의 욕망을 통제하는 능력을 보인다고 하였다.

## 2. 가출청소년과 비가출 청소년의 대처행동과 가출 차이

조사대상자를 가출집단과 비가출집단으로 나누어 대처행동 유형과 가출점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표 4> 가출집단이 비가출집단에 비해 부적응적 대처행동이 높고( $t=-5.84, p<.0001$ ) 가출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t=-10.79, p<.0001$ ). 그러나 적응적 대처행동에는 가출집단과 비가출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49, p>.05$ ). 이 결과는 전체 조사대상자에 대한 차이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적응적 행동을 하는 집단은 가출이 문제해결의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가출의 결과를 현실적으로 또한 논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실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좋아하는 활동 등을 하여 위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긍정적 적응양식을 가지는 반면 가출청소년은 자신감이 결여되어있고 자

<표 3> 청소년 가출 관련 변인 상관관계

| 변 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1. 폭 력     | -        |          |          |          |          |          |          |          |          |         |      |    |
| 2. 부의사소통   | -.353*** | -        |          |          |          |          |          |          |          |         |      |    |
| 3. 모의사소통   | -.297*** | .634***  | -        |          |          |          |          |          |          |         |      |    |
| 4. 가족응집력   | -.189**  | .555***  | .554***  | -        |          |          |          |          |          |         |      |    |
| 5. 가족적응력   | -.269*** | .562***  | .506***  | .690***  | -        |          |          |          |          |         |      |    |
| 6. 소독적정도   | -.186**  | .369***  | .237**   | .173*    | .146*    | -        |          |          |          |         |      |    |
| 7. 정서적스트레스 | .262***  | -.592*** | -.472*** | -.281**  | -.341*** | -.203**  | -        |          |          |         |      |    |
| 8. 자존감     | -.248*** | .431***  | .309***  | .175*    | .282***  | .188**   | -.507*** | -        |          |         |      |    |
| 9. 통제성     | -.147*   | .309***  | .202**   | .164*    | .154*    | .264***  | -.405*** | .396***  | -        |         |      |    |
| 10. 부적응적대처 | .194**   | -.402*** | -.365*** | -.263*** | -.236**  | -.129    | .374***  | -.204**  | -.156*   | -       |      |    |
| 11. 적응적대처  | .066     | .004     | -.048    | .171*    | .175*    | .032     | .003     | .273***  | .091     | .204**  | -    |    |
| 12. 가 출    | .347***  | -.592*** | -.477*** | -.345*** | -.408*** | -.250*** | .410***  | -.315*** | -.287*** | .553*** | .077 | -  |

\* $p<.05$  \*\* $p<.01$  \*\*\* $p<.001$

〈표 4〉 가출유무별 청소년의 대처행동과 가출점수 차이

|       | 적응적 대처 |      | 부적응적 대처 |          | 가출점수  |           |
|-------|--------|------|---------|----------|-------|-----------|
|       | 평균     | t값   | 평균      | t값       | 평균    | t값        |
| 가출집단  | 17.65  |      | 10.28   |          | 27.33 |           |
| 비가출집단 | 17.33  | -.49 | 6.96    | -5.84*** | 15.57 | -10.79*** |

신의 환경에 대해 통제감이 낮아 스트레스 유발사건에 대한 위기대처능력이 비가출청소년보다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 3. 청소년의 가출 인과관계

청소년 가출 인과관계는 조사대상자중 가출집단의 숫자가 적어 가출청소년 집단과 비가출청소년

집단의 인과관계를 각각 조사하지 못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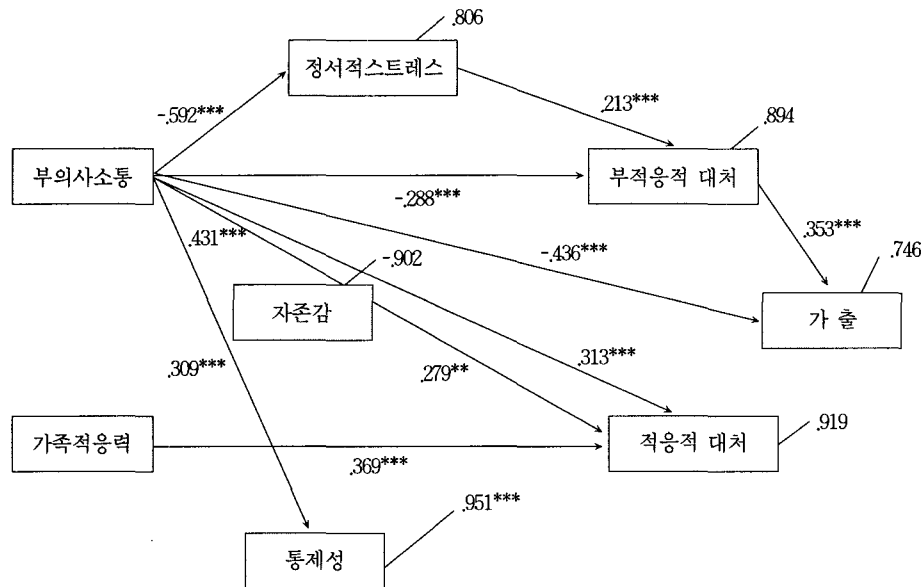
청소년 가출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각 단계별 1차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전 다중공선성 여부를 알아보기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1차 단계별 회귀분석에서  $p<.05$  수준에서 유의한 변수들을 선정한 후 이들을 기초로 하여 최종 인과모형을 결정하였다(표 5, 그림 2).

경로분석 결과 청소년의 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가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청소년의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적 스트레스와 부적응적 대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 5〉 경로모형 설정을 위한 회귀분석

| 종속변인    |                              | 독립변인                                                                   |                                                                       |
|---------|------------------------------|------------------------------------------------------------------------|-----------------------------------------------------------------------|
|         |                              | 초기모델( $\beta$ )                                                        | 최종모델( $\beta$ )                                                       |
| 정서적스트레스 | 부의사소통                        | -608***<br>$R^2 = .369$<br>$F = 64.42***$                              | -592***<br>$R^2 = .351$<br>$F = 78.87***$                             |
| 자존감     | 부의사소통                        | .493***<br>$R^2 = .243$<br>$F = 35.89***$                              | .431***<br>$R^2 = .186$<br>$F = 34.03***$                             |
| 통제성     | 부의사소통                        | .269**<br>$R^2 = .073$<br>$F = 8.78**$                                 | .309***<br>$R^2 = .095$<br>$F = 15.41***$                             |
| 부적응적대처  | 정서적스트레스<br>부의사소통             | .269*<br>-.245*<br>$R^2 = .213$<br>$F = 13.98***$                      | .213*<br>-.288**<br>$R^2 = .201$<br>$F = 17.49***$                    |
| 적응적대처   | 자존감<br>통제성<br>가족적응력<br>부의사소통 | .283**<br>-.214*<br>.437***<br>.354**<br>$R^2 = .222$<br>$F = 7.34***$ | .279**<br>-.104<br>.369***<br>.313**<br>$R^2 = .155$<br>$F = 8.045**$ |
| 가출      | 부적응적대처<br>부의사소통              | .375***<br>-.401***<br>$R^2 = .427$<br>$F = 37.26***$                  | .353***<br>-.436***<br>$R^2 = .443$<br>$F = 54.47***$                 |

\* $p<.05$  \*\* $p<.01$  \*\*\* $p<.001$



〈그림 2〉 청소년 가출 경로모형

도 영향을 미친다. 즉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할수록 청소년은 가출충동을 느끼게 되고 또한 불안과 우울 수준이 높아 정서적 스트레스가 많으며 정서적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청소년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문제해결적 대처를 하지 못하고 가출하게 된다(표 6, 그림 2).

이 결과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이면 가족의 적응성이 떨어져서 청소년자녀의 가출에 영향을 준다고 한 김선남(1994), 도수경(1991)과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청소년 자녀들은 우울증, 적대감, 대인예민성 등을 적게 경험하는 반면(김오남, 김경신, 1994; Capaldi, 1991) 폐쇄적 의사소통은 우울을 유발하게 된다는 백양희, 최외선(1997)과 최규련(1998)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부적응적 대처행동은 청소년의 가출을 야기하는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화를 내고 소리 지르거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 피우는 등의 대처행동은 가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표 6, 그림 2).

정서적 스트레스는 가출에 부적응적 대처행동을

통한 간접효과만 나타내었다. 불안과 우울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부정적으로 대처하여 가출하게 된다. 불안, 우울, 혼란등의 정서상태는 울음이나 잠자기와 같은 회피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음주, 약물 사용 그리고 가출과 같은 부정적이고 도피적인 행동으로 이끌기도 한다(나동석, 이용교 역 1991).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정서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자존감과 통제성을 포함하여 개인적 요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그림 2).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청소년의 자존감이 높고 자존감이 높을수록 적응적 대처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적 대처행동은 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정상적인 성격이나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은 긍정적으로 대처하여 비행이나 가출로 유도되지 않는다고 한 이정자(1973)와 긍정적인 사고와 문제를 직시하는 대처방안을 택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회적응도를 보인다고 한 Aldwin과 Revenson(1987)의 결과를 지지한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통제성에 영향

〈표 6〉 청소년 가출 인과효과

|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총효과   |
|---------|-------|-------|-------|
| 부의사소통   | -.436 | -.146 | -.582 |
| 정서적스트레스 |       | .075  | .075  |
| 부적응적대처  | .353  |       | .353  |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적응력은 청소년의 적응적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가족의 역할이나 규칙 등이 융통성이 있다고 지각할수록 적응적 대처행동이 나타나고 이는 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도수경(1991)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지나친 권위적 통제와 융통성 없는 역할 등이 가출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 개인적 요인과 대처행동의 영향력을 인과모형을 통해 가출경로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가족요인에서 폭력점수가 높은 집단,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낮은 집단, 가족 응집력과 적응력이 낮은 집단, 그리고 소득적정도가 낮은 집단에서 가출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에서도 정서적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자존감과 통제성이 낮은 청소년집단의 가출점수가 높았다.

청소년의 대처유형에 따라 가출에 차이가 나타났다. 부적응적 대처행동과 가출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고 부적응적 대처행동 점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가출충동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의 적응적 대처행동과 가출간에는 관계가 없었다. 이 결과는 가출청소년 집단과 비가출집단간에 대처유형과 가출 점수 차이에서도 같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가출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낮고 만족하지 못할수록 청소년은

가출충동을 느끼고 또한 간접적으로 불안과 우울수준이 높아 정서적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정서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적응적으로 대처하여 가출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청소년의 부적응적 대처행동은 가출에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반면 적응적 대처행동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적응적 대처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자존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만족할수록 청소년의 적응적 대처행동이 높아지고 또한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대처능력이 향상된다.

가족 적응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적응적 대처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정서적 스트레스, 자존감, 통제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경로에 대한 이해는 가족적 요인중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정서적 스트레스, 자존감, 통제성 개인적 요인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스트레스는 부적응적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쳐 가출을 야기하게 되므로 청소년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부모와 청소년자녀간의 갈등이 주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문제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청소년 자녀의 불안과 우울로 이어져 정서적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부적응적으로 대처하게 되고 집을 떠나고 싶은 가출충동을 일으키게 되므로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 부모교육 특히 아버지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많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있고 청소년기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 연구결과는 아버지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여 아버지의 역할과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하도록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가족상담을 통하여 가족결속과 갈등해결을 위한 부모자녀관계를 증대하여 근본적으로 가족환경을 강화하는 것이 청소년자녀의 가출 문제에 효과적 예방과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와의 갈등과 자신의 정서적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능력을 강화시키는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부적응적 대처행동은 가출과 직결된 반면 적응적 대처행동은 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대처기술 훈련과 자존감, 통제력 및 대인관계를 상승시키는 훈련에 역점을 두어야한다. 가출청소년의 경우 낮은 자존감을 증진시켜서 자신감을 갖게하고 스스로 자신의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갖도록 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에 부딪혀서도 스스로 적응적 대처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경로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으나 조사대상자가 대구시의 임대아파트 거주지역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연구대상의 제한성으로 인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고 가출청소년의 숫자가 작아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경로를 밝히지 못하였다. 추후연구에서는 가출 청소년과 비가출 청소년의 가출경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고 특히 가출 유형에 따른 관련변인과 경로를 밝혀 효과적인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가출횟수에 따른 차이,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와 학교 및 기타 기관에 따른 차이도 조사하여 청소년 개인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가출 예방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권윤아·김득성(1999). 실업계 여고생의 가출영향 변인들 및 가출유형분석 - 개인, 가족, 또래 및 학교변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권 1호, 2-13.
- 김미희(1997).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거주형 집단 치료시설의 효과성 평가 - 대한성공회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오남·김경신(1994).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유형 지각과 가족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32(3), 105-119.
- 김향초(1998). 가출 청소년의 이해. 학지사.
- 김헌수(1980). 청소년 가출의 가족역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 학위 논문.
- 김혜래(1985). 청소년의 가출행위에 있어서 스트레스의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나동석·이용교 역(1991). 가출 청소년 연구. 한국 청소년 연구원.
- 남영옥(1998). 가족의 심리 역동적 환경이 청소년의 생존전략적 가출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도수경(1990). 가출 경험 소녀와 비가출 경험 소년간의 가족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대구 청소년 종합상담실(1996). 대구지역 청소년들의 가출의식과 실태.
- 문화체육부(1997). 청소년 백서.
- 박상균(1985). 인간관계 훈련이 가출성향 여중생의 성격특성 변화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양희·최외선(1997). 환경변인 및 내적 통제력,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5(2), 33-48.
- 서울 YMCA 청소년 상담실(1991). 가출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서울 YMCA 청소년 자료집
- 서울 YMCA. 청소년 가출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 서울 YMCA 청소년 쉼터.
- 시립 청소년 사업관(1992). 청소년의 우울증과 우울 대응행동. 청소년 문제 연구보고서 10집, 시립청소년 사업관.
- 안창규(1990). 잠재적 비행소년의 조기진단검사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성곡논총 21.
- 안창규·문선화·김윤식(1993). 가출청소년과 학교관리체제. 집문당

- 19) 엄명용(1996).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가족 및 지역복지 서비스 모형. 한국 복지학, 제 29호.
- 20) 이용교(1991).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대책 모색. 가출 청소년 어디로 가고있나? 서울 YMCA 청소년 상담실 심포지움.
- 21) 이소희·주정일(1981). 아동복지학. 교문사.
- 22) 장인협(1981). 아동 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23) 전병제(1991). 청소년 친구집단과 비행간의 상관성 연구.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 24) 전유자(1985). 한국 청소년의 가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25) 전재일·양점도(1991). 청소년 비행의 가정환경적 요인 특성, 사회복지 연구 19호,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6) 정유미(1997)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 행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7) 조선일보(1998.11.11) 가출 청소년, 성 산업 취업 예비군.
- 28) 주영희(1985). 가출 아동을 통한 아동 학대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80호.
- 29) 지창희(1987). 중학생의 가출요인 및 성격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30) 최규련(1998). 가족체계유형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31-42.
- 31) 최창영(1989). 집단상담이 소년원생의 자아개념 변화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 석사학위 논문
- 32) 표갑수(1993). 청소년 가출의 원인과 현황. 귀 자녀도 가출할 수 있습니다. 제 8회 청소년 상담세미나 자료집. 서울 가정법원 청소년자원 보호자협의회.
- 33)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1993).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 34) Adams, G.R., & Monro, G.(1979). Portrait of the north American runaway: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8(3), 359-373.
- 35) Bell, T. & Hien, K.(1984). The adolescent an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In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N.Y.: McGrawhill.
- 36) Englander, S. W. (1984). Some self-reported correlates of runaway behavior in adolescent work group.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3), 484-485.
- 37) Farber, E., & Joseph, J.(1985). The maltreated adolescent patterns of physical abuse. Child Abuse and Neglect, 8, 295-299.
- 38) Folkman, S. & Lazarus, R.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 39) Leventhal, T.(1963). Control problems in runaway childre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9(2), 122-126.
- 40) Levinson, B. M. & Mezei, H. (1970). Self-concepts and ideal self concepts of runaway youths: Counseling implications. Psychological Report, 26(3), 874.
- 41) McCubbin, H. & Patterson, J.(1983). Family stress and coping. Howard Press.
- 42) Roberts, A. R. (1982). Stress and coping patterns among adolescent runaway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ical, 23, 156-163.
- 43) Roberts, A. R. (1987). Runaways and non-runaways, An exploratory study of adolescent and parental coping. Illinois, The Dorsey Press Chicago.
- 44) Shellow, R., Schamp, J., Liebow, E., & Unger, E.(1967). Suburban runaways of the 1960's. Monograph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32, 1-51.
- 45) Shinohara, M. & Jenkins, R. L.(1967). MMPI study of three types of delinqu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3, 156-163.
- 46) Silver, R. L. & Wortman, C. B.(1980). Coping with undesirable life events. In J. Garber & M.E.P. Seligman(Eds.), Human helplessness: theory and applications. New York: Academic Press.